



# 일심일체 道 를 깨치다

## ■ 광주시 검도회 중앙도장

### 20여 회원들 매일같이 검과 한몸되어 禮와 道 추구

### 심신수양 우선... 건강 다지기·스트레스 해소는 '덤'

지난 6일 밤 8시 30분. 광주시 서구 영주동에 위치한 광주시 검도회 중앙도장에 20명의 남녀 검객들이 무릎을 꿇고 앉아 명상을 통해 심신의 조화로운 마음을 피하고 있었다.

바늘 하나라도 떨어지면 소리가 들릴 듯 고요한 시간이 흐른다. 5분여가 지났을까 김재훈(28)사범의 힘찬 기합소리가 정적을 깨뜨린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대형을 만든 '검객'들은 준비운동과 기본기술 훈련을 하면서 대련을 하기 위한 몸풀기에 들어간다.

대련을 하기도 전이지만 회원들이 내지르는 기합소리에 이미 스트레스는 훌훌 날아가버린다.

이들 20명의 주인공은 광주시검도회 중앙도장 회원들. 매일 밤 8시부터 9시30분까지 1시간 30분 동안 기·검·체의 일치를 위해 땀을 흘리며 인격수양의 도를 닦고 있는 검객들이다.

30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모두 직장인들이다 보니 30여 명이 다 모이기는 힘들다. 그렇지만 20명정도의 회원들은 항상 빠지지 않고 도장에 나와 힘찬 기합소리와 함께 죽도를 휘두른다.

'마음이 발라야 몸이 바르고, 몸이 발라야 칼이 바르다' 칼이 반듯이 나가지 않으면 검도는 도라고 할 수 없다.

강화영(55)동호회 회장의 검도에 관한 철학이다. 현재 경찰인 강 회장은 30년 경력의 4단 실력자

다. 매년 경찰무도대회에 출전한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그에게 있어서 검도는 생활이자 철학이다. 강 회장은 "검도는 인간수양의 도로써 승부를 떠나 자신의 수양이 우선되는 운동이다"며 "자신의 엄격한 관리와 정도를 걷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스스로의 고행의 길이다"고 말했다.

이같은 강 회장의 검도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밑바탕이 돼 광주시검도회 중앙도장 회원들은 예와 도를 추구하는 검도인이 됐다.

그렇다고 기술과 실력연마에 등한시 하는 것은 아니다. 강 회장을 비롯해 지도사범을 맡고 있는 김종을 광주광역시 검도회 전무이사는 6단, 선수 출신인 김영규(49)사범은 5단, 안명근(37)사범과 이우복(50) 사범도 4단으로 어느 도장에서 볼 수 없는 고수들이 즐비하다.

특히 김종을 전무이사는 지난해 전국의 검도장의 관장 등으로부터 답지하는 축하와 부러움으로 인해 많은 술값을 내야했다. 지난해 광주에서 열린 전국체전에서 광주검도가 고등부, 대학부, 실업부 모두가 금메달을 따내 전무후무한 전관왕 위업을 달성했기 때문이다.

김 전무는 지금도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 지금까지도 없었지만 앞으로는 없을 기록으로 평

가받는 전관왕의 위업을 달성한 광주검도의 산과 역을 할 정도로 검도는 김 전무의 모든 것이다.

전진영(35) 총무는 "우리 동호인클럽은 어느 도장에서 볼 수 없는 고단자들이 많아 후배들이나 신입회원들이 실력을 연마하는데 최선의 환경을 갖고 있다"고 자랑이다.

임은경(여·40) 회원은 13년 경력의 2단의 실력을 뽐낸다. 여성회원들 중 가장 고수에 속한다. 남자회원들과 대련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는다. 25살 처녀시절 검도에 입문해 심신수양을 했으나 결혼과 육아로 인해 잠시 죽도를 멀리 하다 그 느낌을 잊을 수 없어 다시 죽도를 잡았다. 주부라는 어려운 속에서도 일주일에 3~4회는 꼭 출석을 할 정도로 열성이다. 임 회원은 "검도인들은 자세가 바르고, 예의가 바르다"며 "건강과 스트레스 해소는 덤 일뿐이다"고 웃었다.

15년 경력의 심부미(여·40) 회원도 역시 20대에 입문한 뒤 가사와 직장 때문에 검을 놓았다가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다시 검도장을 찾았다. 심신수련과 예와 도를 추구하는데 만족했지만 올해안에 1

단을 꼭 따겠다며 휘두르는 죽도에서는 바람소리가 난다.

6개월 된 이정숙(여·32) 회원도 기합소리를 내지르고, 온 힘을 다해 죽도를 휘두르다 보면 어느새 온 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나를 잊게 된다"며 기자에게도 꼭 입문 할 것을 권한다.

이현태(45)·이우복(50) 부회장도 각각 3단과 4단의 고수다. 이현태 회원은 사업을 하는 관계로 슬자리가 잦지만 일주일에 3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검도장에 나와 땀을 흘리며 흐트러진 심신을 가다듬는다. 이 부회장은 "일 때문에 심신이 지칠때가 많은데 검도를 통해 건강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검도회 중앙도장 회원들은 매일 밤 8시 검도장을 찾아 죽도를 휘두르며 예를 취하고 심신의 건강을 다지고 있다.



**신형 가족사랑 캠페인**

경영평가 전국 1위 기념

30억 원도

**6.56%** 연이율

7.65%

관음신용협동조합

충장로 4가 광주역점 1층

전화 224-1883, 1921

**큰바다 해물탕**

부산광역시 동래구

부산광역시 동래구 대천로 111-1

051-515-3339~40

대천역 5분거리

부산광역시 동래구 대천로 111-1

051-515-3339~40